

광주신세계, 개점 24주년 페스티벌



㈜광주신세계가 개점 24주년을 맞아 특별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고객 성원 감사 특가상품 기획 및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통한 상품 기획, 뱅크 신세계 와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있다. 또 생활전문관 신규 오픈에 따른 브랜드별 사은행사 및 할인 행사를 전개한다.

2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개점 24주년 축하 페스티벌'을 연다.

먼저 고객 성원 감사 특가상품 기획으로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한우 채끝 (100g) 1만500원, 은갈치 (1팩) 1만5천200원, 2층에서 피에르가르 텡 숙녀덧신 (5족/100개 한정) 1만원, 3층에서 매트로서티 실버팔찌 (50개 한정) 4만원, 탠디 여성화 (100개 한정) 20만6천500원 등 다양한 상품들을 특가로 기획했다.

단독 상품도 선보인다. 글로벌 브랜드인 컬럼비아와 협업해 신세계 단독으로 출시한 아치 뿔리스 재킷을 새롭게 출시했다. 네이비·블랙·와인 3컬로 12만9천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 1층 와인하우스에서는 '1년에 단 한번, 뱅크 신세계'를 진행,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대표 품목으로 베가 시실리아 핀티아 (스페인) 750ml 7만5천원, 생크리틀 제임스 루즈 글라스페이지 (프



광주신세계가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고객 성원 감사 특가상품 기획 '개점 24주년 축하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사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전경.

오늘부터 29일까지...고객 성원 감사 특가상품 기획 생활전문관 신규 오픈 기념 사은·할인행사도 전개

랑스) 750ml 2만5천원, 알타비스타 싱글빈야드 세레나데 (아르헨티나) 750ml 7만9천원, 우마니룬끼 요리오오 (이탈리아) 750ml 1만2천원 등을 판매한다.

개점 24주년을 맞아 23일 생활전문관도 문을 연다.

생활전문관 오픈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로써 지난해 명품 브랜드 오픈에 이어 올해 6월 푸드플라자, 지난달 아카데미 재단장·골프 아동 층간 이동, 이달 초 신관 (구 패션스트리트) 매장 확대를 통해 젊음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고객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전문관은 8층에 주방·수예 브랜드 이동과 함께 프리미엄가전과 가구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다. 대표 브랜드로는 가전에는 삼성·LG·보스·밀레·위니아 등이 오픈하고 가구 브랜드는 프리츠한센·나뚜찌 등이 오픈한다. 이밖에 가구에서부터 소품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까사미아가 오픈한다.

브랜드별 오픈 축하 기념으로 삼성에서는 혼수고객 대상 스페셜 혜택, 품목별 할인, 비스포크 냉장고를 구매하면 금액별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LG에서는 오픈 기념 가격할인 및 신세계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한다.

이외에도 각 브랜드에서 일부 품목에 한해서 가격 할인 및 사은행사를 전개할 예정이며,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8층 본매장에서 '리빙 솔찬템'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솔찬템'은 '솔직히 찬스인 아이템'을 줄임말로 '솔찬히/솔찬하다'라는 광주·전남지역의 방언이다.

대표 품목으로는 스타우비 원형 꼬꼬매 20cm (30개 한정) 11만9천원, 포트메리온 VR BF더그 2P (50개 한정) 3만1천3백원, 보스 SOUNDLINK AE2 BT (30개 한정) 22만9천원 등을 기획해 판매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광주신세계가 지역민들의 사랑에 힘입어 어 느덧 개점 24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생활전문관 오픈 및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이른 추석, 선물세트 트렌드 바꿨다

과일 시세 예측 난항...조미료·통조림 물량 ↑

이른 추석 (9월13일)이 선물세트 사전예약 트렌드마저 바꿨다.

신선식품 시세 예측과 물량 확보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물량 계획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추석 선물세트 대품인 과일의 경우 이른 추석으로 인해 시세 예측이나 출하 물량 파악이 어려워진 만큼, 대체 상품으로 조미료·통조림 등 가공식품 기획 물량을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22일 이마트에 따르면 조미료·통조림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예약 준비 물량을 10~30% 가량 늘렸다.

선물세트 사전예약 역시 평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마트의 사전예약 판매일수도 전년 보다 5일 줄어들었다. 사전예약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길어지던 사전예약 판매 기간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이마트가 2012년 이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을 살펴본 결과, 판매일수가 줄어든 사례는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전체 판매기간은 2012년 17일에서 작년 기준 42일로 두 배 이상 길어졌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기간이 바캉스 시즌과 겹치면서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음을 고려해 판매일수를 단축시킨 것이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7월2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37일간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을 통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중이다. 해당 기간 선물세트를 구입하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구매한 선물세트는 필요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령처로 배송된다.

/임후성기자



지난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아동매장에 오픈한 '이유식 카페'에서 직원들이 유기농라이스바 등 상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백 광주점 '이유식 카페' 선포

27일까지 오픈기념...다양한 혜택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외출시 이유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원하는 이유식을 바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이유식 카페'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아동매장에 지난 21일 오픈한 '푸드케어 이유식 카페'는 우리 아이의 신선한 이유식을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픈 전부터 지역 맘카페에서 입소문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케어 이유식 카페'는 우리 아이에게 먹인다는 기업이념을 가지고 유리 용기에 포장된 가정간편식(HMR) 이유식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는 국내 최초 유리병 이유식 브랜드다.

이유식 시작 단계인 미음부터 완료가

식단까지 총 7단계로 세분화된 이유식을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는 유리병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며, 유아식·유기농 그릭 요거트·유기농라이스바·100% 과일 잼 주스도 함께 판매한다.

오픈을 기념해 오는 27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유식과 유아식 10종을 3만원에 판매하며, 정기배송 신청고객에게는 신청 기간에 따라 최대 4일분의 이유식을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

이때 롯데백화점 광주점 아동유아 선임 파트리더는 "앞으로도 고객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고객에게 다양하게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덜 더웠던 여름...유통가 여름특수 '실종'

롯데멤버스 "냉방가전·아이스크림·냉음료 등 덜 팔려"

올 여름,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통업체가 여름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컨설팅업체 롯데 멤버스는 7월 엘포인트(L.POINT) 소비지수가

여름 특수 실종과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4.9%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통영역별로는 인터넷 쇼핑 (3%↑)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소비지수가 하락

했는데 특히 냉방 가전 수요가 줄면서 가전 전문 판매점의 소비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24.2%나 떨어졌다.

편의점도 아이스크림이나 즉석 음료 등 여름 상품 판매 부진으로 소비지수가 0.2% 감소했고 백화점 (-4.9%)과 슈퍼마켓 (-9.9%), 대형마트 (-10.8%)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너뷰티' 열풍에 힘입어 콜라겐이나 다이어트보조제 등 미용 식품 수요는

전년 동월보다 83.8% 증가했다.

또 즉석국·찌개 (35.5%), 레토르트 (21.8%) 상품 소비도 늘어나면서 간편식의 꾸준한 인기를 보여줬다.

롯데 멤버스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지난해보다 약간 더워요 여름특수가 반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에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선물세트 사전판매가 진행되면서 유통가가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